

1

세찬 강물이 강둑에 넘실대고 있다. 깊이가 3-4m 정도인데, 이 강을 무작정 건너라니.

지팡이를 내려쳐서 홍해를 가르듯 이곳을 먼저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든가. 물살이 이토록 빠르는데 그냥 건너라한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강을 건너시오' 리더의 외침이 터질 것 같은 심장속에 파묻혀 들어간다.

모두들 비장한 눈빛으로 숨죽인 채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 후퇴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밖에는 내게 주어진 길이 없는 것 같다.

이곳만 건너면 약속의 땅을 밟게 된다. '주께서 행하실 거야.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믿음의 고백을 내뱉으며 죽으면 죽으리라의 심정으로 언약궤의 채를 어깨에 싣고, 강물에 발을 들여 놓는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믿음의 행보뿐이다. 그러면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요단강 도하를 코앞에 둔 제사장중 한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작년 초 국제교회 개척을 앞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고, 발을 옮길 때마다 발목에서부터 느껴오는 차디찬 물살의 기운이 온 몸 구석구석으로 순식간에 전해집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담으며, 그렇게 한 발자국 씩 1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땅을 밟으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6개월간 JJ 국제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 해오던 조핀조이(Jofin Joy)가 주님의 때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임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분의 한국 후원자가 세워지면서 3월부터 전담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핀조이의 직장 생활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양하고 제자화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인도 목회자로 탄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JJ국제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을 이끌어 나가는 인도 목회자로 탄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JJ국제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보니 큰 소리로 기도도 찬양도 하기 어렵고, 외부에서 찾아올 땐 아파트 정문에서 신분을 확인받아야 들어올 수 있어 사실상 외부인이 교회 오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늘면서 장소의 협소함도 느낍니다. 교회가 외부로 나가게 될 주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와중에 작년 말 인도에서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집사님 한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장 설립을 위해 건물을 빌렸는데 2층을 교회로 사용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었지만,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그리고 인도에서 교회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월세 내주는 건물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참 귀한 제안이었습니다. 교인 모두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했고 2019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순종에, 2020년 주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실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부 건물로 교회가 이사를 갈 때에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찾아오기에 약간 외진 곳이라는 위치적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건물 70평에 천정이 너무 높아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하울링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천정을 낮추고 파티션을 나누는 인테리어 작업의 필요와 음향 및 악기시스템, 에어컨, 의자 등 교회 비품들의 필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기근과 번영이 땅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염려에 불과했고,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약 이천만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희 상황으로는 진행이 어려운 일입니다. 월세는 JJ 교회에서 감당을 하겠는데 그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능력 밖의 일이더군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교회가 외부 건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께서 까스나 지역에서 일하실 그 일하심들에 대한 기대감은 더해만 갑니다.

같은 장소에, 주일 오후에는 그동안 장소를 위해 기도해오던 까스나 힌디교회가 들어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어 클래스를 그 곳에서도 열어 교육선교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이 때임을 확신하며 새벽마다 더욱 인도와 그레이터 노이다의 복음화를 위해, 제자화 사역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로쉬니 바반

교회의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디야스쿨 어린이들과 함께 1월 31일 소풍을 갔습니다. 아직은 추운 겨울이라 팬츠를까 조금 염려했는데, 주님은 최고의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자연속에서 맘껏 뛰어 놀며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2월에 생애 처음으로 소풍이라는 것을 경험해본 그 아이들이 올해 두번째 소풍을 나왔는데, 이전보다 더욱 행복해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군요.

천진난만하게 마냥 큰 웃음들을 뽐어내는 모습에 그 아이들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도 호탕하게 맘껏 웃으시는 하루가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행복한 웃음들을 주님 안에서 계속 누리고, 그 웃음들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디야 스쿨에 컴퓨터 수업이 열렸습니다. 라즈 형제가 가르칩니다. 기타 클래스에 이어 두번째 방과 후 수업입니다. 지금은 비록 정식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는 가난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하여서 6년후, 10년후 인도 사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린다르 형제가 성경공부 교재 한권을 모두 마쳤기에 그것을 다른 형제에게 가르치기 위해 기도중입니다.

로빈드로 형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세미나를 1월에 우수 성적으로 수료를 하였고, 그래서 영어 클래스를 열기위해 기도중입니다.

크리슈나 형제가 매월 첫째주 주일에 힌디교회 설교를 시작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주 주일에 JJ 국제교회 교회학교 인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처음 교회학교를 인도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잘 따라주지 않고 본인도 준비한 것을 잘 전달하지 못해 조금 상심해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더 연습하여서 다음달 셋째주에는 조금더 나아진 모습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조핀조이 형제의 JJ 국제교회 설교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PPT 만드는 기술도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처음으로 찬양인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박자도 잘 안맞고, 기타 연주도 자유롭지 못했고, 의도하는대로 잘 인도하지 못해서 2월에 한번 인도하게 될 때 제가 옆에서 기타를 같이 쳐주기로 했습니다. 설교자와 찬양인도자로 잘 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중입니다.

너마띠야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문맹이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토니** 자매가 생각한 것은 신약성경 오디오를 매일 듣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7 가정에 하나씩의 mp3 기기를 주고 그 안에 성경오디오를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재정이 5만원 정도 필요한데 3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2만원은 후토니 자매가 섬기기로 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마음이 참 귀한 자매입니다.

아닐 형제가 영어수업을 6개월 정도 참여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지만, 분명한 성장이 보입니다. 영어로 인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중입니다.

아르준 형제가 라자스탄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한지 8개월이 되어갑니다. 이전에도 계속 해왔던 힌디어 설교외에 영어 설교도 한달에 한두번씩 인도하면서 영어 설교 훈련도 잘 받고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리떼쉬 형제도 영어를 가르치는 세미나를 수료하여서 조만간 델리 북서부 지역인 술탄뿌리에서 영어클래스를 열기 위해 기도중입니다.



인도의 영혼들을 섬기면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전담 사역을 하고 있는 로빈드로 형제가 몇가지 연약함으로 반복해서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하루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심각하게 10일 동안 함께 집중 기도하자. 그리고 응답을 함께 나누자. 기도한지 이틀째 주님은 명확하게 제게 응답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셨고, 주님의 손에 쥐어진 붓과 같아서 주님이 그리기를 원하시는데로 그는 움직일 것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가 오래 걸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오래 걸린다'는 단어에 낙심이 되더군요. 왜 그리 오래 걸리는 친구를 제가 불려주셨습니까 원망섞인 목소리로 주님께 쏟아냈습니다.

10일후 로빈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기도후 어떠한 응답을 받았냐? 잘은 모르겠지만 기도 드릴때마다 제자,

4

사명, 부르심 이 세 단어가 계속 떠올랐답니다. 서로의 응답을 나누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기로 다시금 서로 다짐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며칠 뒤 기도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오래 걸린다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냐? 그것은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가르치는 데에 오래 걸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단다”

그 오래 걸리는 시기는 비단 로빈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의 마음의 그릇이 아직도 작아 많은 다양한 이들을 담을 수 있는 열국의 아버지의 그릇으로 넓혀지는 데에 오래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형제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배우고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아직도 제안의 자아가 더 강하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요청드립니다. 인도 영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긍휼하심, 그 민망히 여기심이 제안에 가득 넘쳐나기를요.



인도의 공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의 목 상태가 늘 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욱 조심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도, 그리고 아파트 안에도 중국인 거주자들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까지 인도에서는 유럽처럼 아시안 혐오의 분위기가 크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파

트 단지 블로그에 ‘오늘 아침 정원에서 중국인 한명이 구토를 했다, 모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더군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모두의 문제이기에 더욱 주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속히 이 재난에서 모두를 건져달라고, 더불어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기도 드리는 일들이 크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놓고 꿈꾸고 계신 그 꿈이 저의 비전이 되고, 아버지의 성품이 저의 인격이 되고, 그분의 권능이 저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저희 사역에, 제 삶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 조핀 조이가 다니던 직장을 잘 마무리하고 전임 사역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열정으로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JJ 국제교회 장소 이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내부 공사 및 시스템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새롭게 이전할 까스나 지역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넘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3. 함께 사역하고 훈련받는 모든 인도 친구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붙잡히 여기고, 섬기며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저희 가족들 모두가 안전하게, 강건하게, 그리고 성령충만하여 각자 주어진 길을 힘있게 잘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세요